포천 만덕사 노천가람 돌부처-석탑 '모인다'

혜숭스님 30년간 전국서 1백여점 수집

신라시대 조성된 목없는 부처님, 조선시대 석가모니불, 일제시대 관세음보살, 화려하게 조성된 미륵불, 허리굽은 할아버지 형상의 부처님, 나반존자, 포대화상, 쌍사자석탑, 석가탑 등등….

포천 만덕사 노천가람 대보리원에 가면 크고 작은 다양한 모습의 1백여 돌부처와 석탑을 볼 수 있다.

서울의 허파인 광릉수목원의 울창한 삼림이 펼쳐져 있는 성암산 자락 3천여평 노천가람에 모셔진 40여구의 돌부처와 70여기의 석탑·포대화상들은 만덕사 회주 혜숭스님이 직접 지게를 지고 지난 30년간 여기 저기에서 나뒹굴고 있는 것을 모셔다 놓은 것이다.

혜숭스님은 문화재 보존에 대한 관심이 미약하던 1970년대 무관심 속에 돌부처·석탑들이 노천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또 그나마 원형이 보존된 것은 일본에 마구 유출되는 것을 보고 성보문화재 보호원력을 세웠다.

대보리원에 모셔진 돌부처들은 나름대로 각각의 사연이 깃들어 있다. 폐사위기에 있던 사찰의 노스님이 열반에 들기전 모셔온 것, 모호텔에서 한동안 전시했다가 노상에 버려진 것, 목이 잘려 야산에 뒹굴고 있는 것 등 다양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일본풍의 지장보살은 서울의 부자집에서 이운해 왔다. 이 보살상은 일제시대 조성된 돌부처 입상으로 시대가 바뀌자 집주인이 파불시키려 한다는 소식을 접한 혜숭스님이 모셔왔다.

스님은 30년간 누구에게도 일체 말을 않고 산속에 위치한 대보리원 부지에 손수 한구 한구 돌부처들을 모셨다. 신도들과 주위사람들도 최근까지 노스님이 산에 부처님들을 모시는지 몰랐을 정도이다. 1천불 1천탑을 염원하고 온갖 정성을 들인 야외가람은 조경이 잘 돼 있어 여느 공원보다 아름답고 말끔하다.

◇하나하나 지게로 대보리원에 모셔다 놓은 돌부처와 석탑들을 가리켜 보이고 있는 혜숭스님.

그러나 오직 돌부처 모시는데만 전념해왔기에 만덕사는 변변한 법당건물 하나 없이 마을한켠의 민가 한 채를 법당으로 쓰고 있다. 민가에 돌부처를 주존과 협시불로 모신 법당과 스님방, 주방이 있을 만큼 초라하다. 스님은 "불자들이 편안하게 절에 와서 법문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돌아가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혜숭스님의 1천불 1천탑 염원은 이제 현 주지인 비구니 지순스님에게 이어졌다. 지순스님은 스님의 원력을 이어 돌부처 모시기 불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힌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북에 비료 730톤 전달

한국 JTS, 설탕·분유도

한국JTS(이사장 법륜)는 9일 여수항에서 선적식을 갖고 730톤의 요소·인산비료와 15톤 분량의 설탕 분유 등 어린이 영양식을 북한 라진-선봉지역과 온성지역 등에 전달했다.

지난해 북한의 4개 농장 1000정보의 땅에 비료, 종자 등 농자재를 지원하고 새로운 영농방식을 시행토록 해 종전의 5배 이상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JTS는 올해 함경북도 지역 10개 농장 2000정보로 지원대상을 늘려 북한의 농업생산량 증대로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97년부터 계속해 온 북한 어린이 영양식 공급사업을 라진-선봉지역 외에도 청진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유치원·탁아소뿐 아니라 고아원, 장애시설 등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뉴스 & 뉴스

대학가 장기기증 캠페인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가 동국대학교에 이어 8일 고려대학교에서 '대학가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였다. 고려대학교 불교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펼친 이날 캠페인에서는 386명이 화장유언서약에, 21명이 각막·장기·시신 기증에 참여했다. 2~4일 동국대에서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504명이 화장유언에, 126명이 장기·신장·시신·각막기증에 동참했다.

한명우 기자

호국적성사 법당 완공법회

25사단 호국적성사(주지법사 이정훈)가 대웅전과 요사채를 증개축하고 9일 법당 완공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스님, 혜랑·혜나·청구스님을 비롯해 신도 20여명과 25사단 부대장, 김인수·정인성·이정훈 법사 등 군불자 3백여명이 참석했다. 한마음선원의 후원으로 개금불사와 함께 증개축한 곳은 대웅전 불단, 12평 규모의 요사채 건립, 상하수도, 간이 화장실 등이다.

강지연 기자

5·18 민주영령 천도재

광주·전남봉축위원회(위원장 종걸·화엄사 주지)는 16일 오후 광주 망월동 5·18 신묘역에서 5·18 민주영령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날 천도법회는 현향,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광주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성호스님의 봉행사, 윤혜월성 광주불교여성회장과 고재유 광주시장의 추모사, 광주사암련 회장 천운스님의 법어, 정수만 5·18유족회장의 인사말, 천도재, 연등행진 등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GMO 반대 생명연대 창립

'유전자조작식품(GMO)반대 생명운동연대'가 12일 조계사 포교원 2층 강의실에서 창립됐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가톨릭농민회 기독교농민회 21세기생협연대 등 17개 농업 및 소비자단체가 구성한 GMO반대생명연대는 이날 창립식을 갖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유전자조작농산물 및 식품의 표시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생명운동연대의 운동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토론회를 벌였다. 김재경 기자

제1회 생명운동 아카데미

부산정토회(회장 법륜)는 환경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상반기 생명운동 아카데미 '생태적 삶을 위한 깨달음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환경강좌를 개설한다.

17일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의 강좌로 시작되는 제 1회 생명운동 아카데미는 부산정토법당에서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씩의 강좌를 열고 6월 10.11일 법륜스님의 강의로 끝을 맺는다. (051)557-2746

천미희 기자

◇행사에 참석한 할아버지들은 "이런 고마운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며 기뻐했다.

'자비릴레이 사찰연합 봉사' 현장

정성스런 가위질 어르신 머리 손질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떻게 깎아 드릴까요."

"시원하게 깎아줘…"

10일 오전 서울 탑골공원에서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개최한 '자비릴레이사찰연합봉사'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이·미용 봉사. 불교자원봉사연합회에서 이·미용 강좌를 수강한 자원봉사자들이 이용사로 나섰다. 이중 자원봉사자인 어머니를 따라 참가하게 됐다는 미용사 김시호(22·서울 수유동)씨의 익숙한 손놀림은 금새 주위의 시선을 끌었다.

"할아버지 이젠 다 깎았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시원해…" 깎은 머리를 만지며 자리를 일어서는 이창수 할아버지(85)는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부처님 오신날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니 기분이 좋아!"라며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제자원봉사단체인 국제워크캠프 회원들도 참석했다. 옛 소련연방 벨로루시에서 왔다는 알렌(32)은 "이런 뜻깊은 행사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불교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지만 매우 인상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용봉사와 함께 오후로 예정돼 있던 수지침 봉사와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행사가 비로 연기되자 한껏 기대했던 일부 노인들은 다소 실망스러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봉축등 아래 앉아 머리 깎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연신 흐뭇한 미소가 흘렀다.

한명우 기자

청주 성각사 복지불사 '난관'

충북경찰청 소유땅 진입로 이용 거절

종합복지원 건립불사가 진입도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난관에 부딪쳤다.

청주 성각사 주지 자행스님은 지난 해 9월 충북청원군 상이리 산 7-1 지역 3만여평의 토지를 매입했다. 복지원과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복지원에는 노인 20명, 고아 10명, 장애인 5명 정도를 수용하여 "고아는 노인을 친부모처럼, 노인은 고아를 손주와 같이 생각하고, 장애인도 같이 사는 정이 넘치는 시설로 만든다"는 것이 자행스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진입로로 쓰려는 땅이 충북경찰청 소유이며, 진입로 옆에 충북경찰청 산하 항공대가 있어 보안상 진입로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 충북경찰청의 입장이다.

다른 곳으로 진입로를 내라는 충북경찰청의 권유를 받아들여 진입로로 쓸 부지 매입을 검토했으나 턱없이 비싼 값을 요구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

다행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4월 25일 "충북경찰청 소유 도로의 일부를 사찰 및 종합복지시설의 진입로로 개설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조계종총무원도 8일 충북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항공대 진입도로 일부를 사찰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충북경찰청은 "사찰측의 진입로 이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국민고충처리위의 의결 직후 이의신청을 냈다.

정성운 기자

목멱산 선우회 5일 창립

5개 불교모임 하나로…회장에 김용정박사

원로학자와 소장학자, 법사 스님을 주축으로 결성된 5개의 불교모임이 하나의 신행단체로 새롭게 태어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엄학회 회장 손창대 박사가 주도하는 삼일선원 선우회와 삼일금강계단 108동우회, 동국대 최봉수 박사를 중심으로 한 근본불교연구회, 대전 보광명사 주지 각성스님과 그 제자들로 구성된 대승불교연구회, 충정사 도윤스님이 지도하는 참선모임이 연대한 '목멱산 선우회'가 5일 남산 충정사에서 창립법회를 가졌다. 회장은 원로학자 김용정 박사가 맡았다.

목멱산 선우회 발족은 불교모임을 이끄는 대표들이 지식인들의 '패거리 문화'를 지양하고 포교를 통해 불법을 회향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목멱산 선우회는 주석·해설을 겸한 깊이있는 경전공부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태교를 진행하면서 어린이 및 청 장년 포교에 주력할 계획이다. 창립과 더불어 선보인 소식지 〈선원〉은 북리뷰, 영화평론 등을 실어 신세대들이 쉽고 재미있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선우회는 또 충정사 내에 한국역사문화교육원을 설립, 불교역사교육을 통한 우리문화 바로 알기 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역사문화교육원을 2001년 한국관광의 해를 대비한 서울시 외국인가이드 위탁교육 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목멱산 선우회는 매주 개최하는 참선수련을 확대해 6월부터는 초심자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02)2266-3760

도필선 기자

목탁소리

조계종의 '달라이라마觀'

김재경 〈취재1부 기자〉

"조계종에서 누가 목숨걸고 불교를 지켰으며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나섰는가. 과연 달라이 라마를 폄하할 자격이 있는가." "서울대가 오죽하면 조계종과 협의없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했겠는가."

지난 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백해무익하다"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에 대한 항의성 글들이 네티즌과 독자들로부터 빗발치고 있다.

물론 총무원장 스님의 발언 당시 정황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점인데다, 외교통상부가 중국에 달라이 라마 방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이전이어서 중국과의 외교·통상적인 문제가 우려되는 면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세계적인 종교·평화·인권 지도자에 대한 예우도 아닐뿐더러, 같은 불제자로서 자비롭지 못한 실언이었다는 것이 다수 불자들의 반응이다.

'달라이라마 방한 범불교대책위원회'(상임대표 법장스님)가 오는 9월초 달라이 라마 방한을 기정 사실화 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준비위원회'로 변경하고, 조계종을 제외한 타종단과 시민단체, 타종교의 유력단체와 연대해 준비위를 꾸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점도 조계종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불자들은 조계종이 지금이라도 달라이 라마 방한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같은 불교도로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도반을 돕는 일임은 물론 침체된 한국불교에 활기를 불어넣고,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기회도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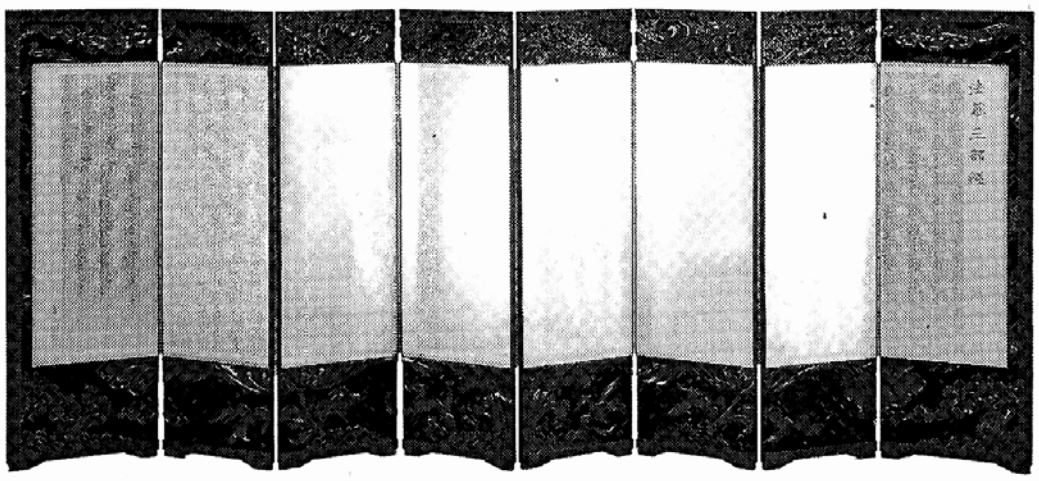
조계종이 선종의 맥을 이은 유일한 종단이라는 아만심으로 티베트를 홀대한다면 대승불교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것은 물론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현세(現世)의 불자들이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家寶)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성품(聖品)

법화삼부경(一名, 법화경) 금니 8폭 조각 병풍

특 징

· 법화삼부경 8만4천여 자가 8폭 금속판 위에 한자 한자 양각으로 입체 조각되어 99.9% 순금으로 도금된 후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코팅 처리를 하여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 병풍은 한폭마다 연꽃, 구름, 법륜, 하늘, 바다 등 모든 구성요인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가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 본 병풍 소장자는 부부이름이 금속판에 조각, 순금으로 도금한 후 병풍 뒷면에 부착되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님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 본 병풍은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폭 한폭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신청 후 받으시는데 1~ 2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인도방법은 손상의 우려가 있어 한폭 한폭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본회에서 직접 모셔다 드립니다.



〈규격〉 높이 : 152cm 길이 : 366cm 무게 : 70kg

■ 본 병풍을 모신 스님과 불자들에게 일어난 신비스러운 사례

① 집안의 공기가 병풍에서 쏟아져 나오는 법기(法氣)의 영향으로 맑아지면서 집안에 생기가 가득차고 앞으로 6개월밖에 못산다는 중환자가 건강이 점점 호전되어 낫아지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② 도산 직전에 있던 회사가 사장이 이 병풍을 모신 후부터 매출이 몇배 신장되고 우연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생기고 하여 이제는 완전히 회생하였다.
③ 자손이 없어 고민하던 사람이 병풍을 모시고 그 앞에서 2개월 정도 기도후 아기를 갖게 되었다.
④ 집안에 도적이 들어 온 집안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집안에 현금과 보석이 가득한데 그것을 못찾고 간 것은 병풍의 법기(法氣)가 재산을 가려주었다고 본다.
⑤ 사법시험에 육년동안 실패했던 고시생이 집안에 병풍을 모신 뒤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⑥ 수험생을 둔 학부모 7명이 모두 병풍을 모신 뒤 원하는 대학에 특차로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⑦ 기독교를 믿고 있던 사위가 병풍을 모신 뒤 바로 불교로 귀의하면서 매일같이 병풍앞에서 3배씩 절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불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⑧ 37세의 노처녀가 병풍을 모신 뒤 2개월 만에 총각 한의사를 만나 결혼하였다.

상기 효험사례 외에 병풍을 모신 사람마다 크고작은 집안의 경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들이 모두 병이 없어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집안이 화목해지고 어떤 일을 하던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어떤 힘(力)이 도와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신비스러운 작용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연락주시면 카다로그 및 설명서 보내드립니다

『아래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 과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담문의 및 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 (0335)334-9490, (0335)334-9491
야간 : (0342)706-306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